

월요논단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아동학대는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의 영혼에 깊이 상처를 새기는 파괴적인 행동이다. 저항할 수 없는 아이가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영원히 지우는 일은 수많은 시간과 돈을 써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봤을 때, 아동 개개인 모두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돼 있으며 중요도의 차이 없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동 개인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국가는 사회경제적으로 개인을 부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사회에서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시정해나가야 할 의무 또한 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사태 파악에 시급한 모습보다는 아동의 도와달라는 구조신호를 빠르게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약자로 내몰린 사람들이 외치는 다급한 신호를 저택의 부부는 단 순히 센서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도와달라는 구조신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모스부호처럼 모호하고 어려운 언어로 분절될지라도 반드시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와의 접촉이 잦은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의 작은 변화라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최근 부모의 학대로 다치고, 죽는 아이들의 소식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사망자는 2019년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이 늘었고, 사례 건수 또한 3만70건으로 전년(2만4604건)보다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약 80%가 부모라는 점이다. 이 점은 가족 내에서 행해진 아동 학대가 드러나기 힘든 이유기도 하다.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대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다. 학대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 쉽거나 보호시설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돼도 대부분이 가해자인 주 양육자, 즉 부모와 다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 전문 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학대의 발생을 막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처우 또한 열악해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환경을 떠나는 최악의 사태도 벌어지곤 한다.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통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과를 신설해 종합적인 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적인 지원, 가해 양육자에 대한 교육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는 재학대의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소 무뎠처럼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아닌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하는 건강한 애착관계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 관계다.

사설

제2공항 의전수령, 제주도는 거부하나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진척없이 움적딱딱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2공항 쟁점해소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여서 그렇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립하며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제주도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 방안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없이는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사실상 도의회가 제시한 공개토론회 이후 공론화 절차에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상한 제주도 공항공출자위원장은

"여론조사가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가 지난달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차 피력한 것입니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시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에 대해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작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 방안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없이는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사실상 도의회가 제시한 공개토론회 이후 공론화 절차에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상한 제주도 공항공출자위원장은

열린마당

혼디 손심영 고치 전통시장 가게 마썸



강재식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장

제주 섬머리 마을 도두동은 제주국 제공항, 해안도로, 제주민속오일시장, 도두봉과 해안선을 잇는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어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을이다.

도두동에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새벽부터 활기차게 문을 여는 제주민속오일시장이 있다. 올 초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전국 확진자 수와 지역감염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감염관리를 통해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부각돼 서서히 시장경기가 살아나는 듯 싶다.

또, 공항서로가 개통돼 공항에서 제주민속오일시장까지 차로 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은 물론 국내외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한다. 시장에는 1000여 개의 점포, 주차빌딩 등이 마련돼 있어 접근성도 좋고 값싸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두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통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나가기 위해 '혼디 손심영 고치 전통시장 가게 마썸' 캠페인을 전개한다.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 산업종사자 등 민·관이 협력하는 이 캠페인은 월 1회 이상 오일장 가는 날 운영 및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차원에서 비닐봉지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공유 하고 장바구니를 배부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돼 보다 많은 제주도민과 여행객이 찾는 전통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저녁식사는 제주민속오일시장에서 장을 봐서 준비하면 어떨까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고위 공직자 성인지 변화·실천 필요”

성평등 습관화 필요성 피력

○...원희룡 제주지사 “‘양성평등의 섬 제주’를 위해 뒷물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성인지 변화와 실천을 당부.

원 지사는 지난 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 워크숍에서 “‘남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으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

이어 원 지사는 “공직사회의 권위적 문화 속 성평등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일상에서의 성평등 습관화의 필요성을 피력. 백귀탁기자

제주항공 무급휴직 돌입

○...제주항공이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만료가 임박해 무급휴직에 돌입하기로 결정. 제주항공은 연 180일 한도인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8월 말로 끝남에 따라 이달 3~6일 전 직원을 대상

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을 예정.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월 최대 198만원)을 받기 위해 1개월 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며 “후후 정부가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면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등교 중단’ 한림초에 온정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으로 등교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던 한림초등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방역물품이 지원돼 눈길.

한림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탐라체육공구 도매업체 '맹맹이샵' 김혜민 대표로부터 아동용 덴탈 마스크 2000장을 기증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

김 대표는 “최근 한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차질을 빚는 교육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주고자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달 배경을 설명. 송은범기자

농기계 임대서비스, 농업인에 큰 위안

제주농업·농촌의 가장되는 위기 속에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임대서비스가 '호자' 노릇을 푹푹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교육 수강생과 이농객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대상 기종과 사전·후 서비스 등 확대로 실질적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 필요성은 크지만 고가의 구입비용·제한적 사용횟수 등으로 자가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 집계결과 올 7월말 기준 농기계 임대실적은 1088대를 기록, 2018년 945대와 2019년 1028대에 비해 매년 확연한 증가세입니다. 서부농기센터는 최근 영농철을 맞아 마늘쪽분리기 선별기 트랙터 등 5종 60여 대를 임대준비 완료했고, 1억 5400만원을 들여 노후기계 교체 및 추가 구입 등을 마쳐 모두 18종 137대 농기계 임대에 연중 나

간중 하나인 농기계 안전교육도 서부농기센터의 경우 코로나19로 늦게 진행했지만 수강생 조기 마감에 교육내용도 알차게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동부농기센터도 올해 2억원을 들여 활용도 높은 트랙터, 굴삭기, 파쇄기 등 14종의 장비 17대 이상을 추가 확보한데 이어 관내 농가들을 위한 저장형 트랙터와 전용 파쇄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호평이다 보니 임대 예약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트랙터의 경우 1인 3일내 임대 제한과 사용일 30일 이내 예약 규정에도 매일 매진입니다. 임대 기종 다양화와 함께 트랙터 등 일부 기종은 임대 대수를 크게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농업인 지원시책은 시대 흐름에 맞는 실효성 제일주의로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농기계임대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력·예산집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고

박승민 아버지 밀양박공 재철(前 중앙여중 교사·향년 68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2일 11시 3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8월 3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8월 4일(화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김녕 입산봉

부인 강인숙
아들 박승민
딸 박단비 사위 진민삼
박샘이 허승민
박빛나

※연락처: 강인숙 010-2697-5234
박단비 010-4943-3204
박승민 010-4924-1666

부고

강홍준(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어머니 전주이씨 희순(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2일 오전 6시 49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8월 4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8월 5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2층)
▶장 지: 양지공원 → 천왕사

남편 강태희
아들 강호준 며느리 김금숙
창윤 문혜경
창주 오복선
딸 강미자 사위 박혁진
복용
손자 강경표 외손자 박준범
태욱
민규

※연락처
강호준 010-3696-0716 김금숙 010-9838-0716
강창윤 010-2686-0135 문혜경 010-2492-8773
강창주 010-2699-1390 오복선 010-6496-3681
강미자 010-5768-1015 박혁진 010-8664-3244
강복용 010-2682-108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두정(향년 7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8월 3일
아들 문경필 며느리 채해성
원준
딸 지영 사위 조현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최공 봉기(향년 9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8월 3일
아들 최승하(배리교) 며느리 김영숙(대사)
승훈(보묘로) 조명녀(가리나)
승원(도리시) 허인숙(안팔라)
석하(래오) 임연숙(삼바)
딸 최혜선(마리아) 사위 김봉찬
은순(로사) 현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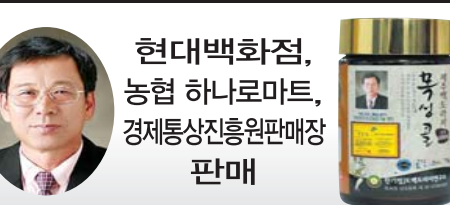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원주변공 윤찬(향년 9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8월 3일
아들 변창우 며느리 문정아
창현 부인택
창규 신은숙
딸 변창효 사위 현창식
옥순 양봉수
옥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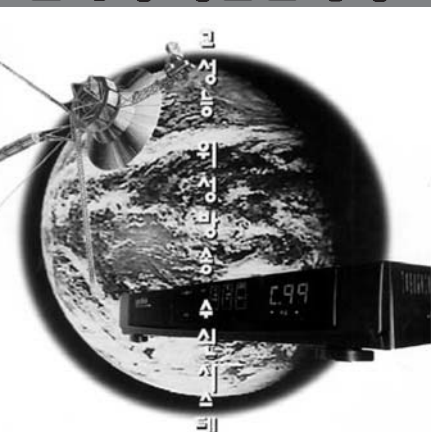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인 SCl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정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설(가임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